***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10. 15.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3분기 매출·영업이익 2배 가까운 성장…**  **역대 최대 분기 이익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86%, 영업이익 77% 성장**  **■ 전남해상풍력 PJT와 해외 통신케이블 시공 실적이 성장 견인**  **■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로 도약,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  LS마린솔루션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까운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이익을 달성했다.  LS마린솔루션은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374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 순이익 58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매출 201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에 비해 각각 매출 86%, 영업이익 77% 증가한 수치다.  회사 측은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 확대와 선박 등 자산 운용의 효율화가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육상 케이블 시공 전문업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해저와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업체로 도약했다.  이달 중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LS빌드윈의 4분기 매출이 반영되어, 연간 매출은 전년도 708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약 1,3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산총액은 6월 말 기준 1,945억 원에서 약 2,7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S마린솔루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해저케이블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참여와 해상풍력 사업 확대, LS전선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